

#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 인터뷰

취재 편집실

1993년 전국 최초의 VTS 시스템을 운영한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포항 곳곳의 밤을 아름답게 비추는 조명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은

어둠 속 바다에서 빛나는 선박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해상교통관제사의 노고 덕분일 것이다.

포항항 VTS 이영시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제센터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포항항VTS 소개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포항항VTS)는 1973년 항무통신업을 시작해 1993년 전국 최초의 VTS 시스템을 운영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7월부터 해상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포항항VTS에는 행정팀과 관제운영 3팀이 있는데, 18명의 관제사가 24시간 3팀 2교대로 연간 43,648척 이상의 포항항 입출항선박을 관리합니다. 3대의 레이더시스템을 기반으로 포항항과 교통안전특정해역 내의 선박 동정을 파악하고 운항정보를 제공하면서 안전확보와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 2019년도 포항항VTS 관제 전망

최근 부쩍 상선-어선 간의 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포항항VTS는 전국 세 번째 정도의 1,062km<sup>2</sup> 규모의 면적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근 어항인 구룡포항, 강구항 등에서 입

출항하는 여선도 많아 상선-어선 간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년 3월에는 상선-어선이 VHF 미정취와 경계소홀로 긴박한 충돌 상황에 처할 뻔 했으나 포항어업정보통신국과 협업해 어선침로를 긴급히 변경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적극적인 관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해양사고를 방지해 국민의 해상안전 확보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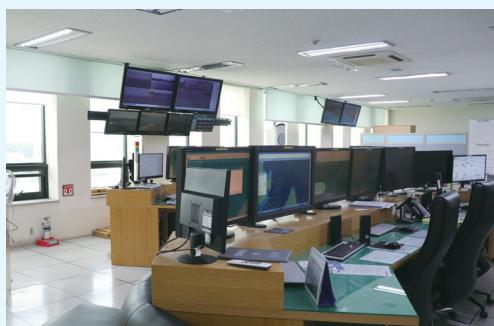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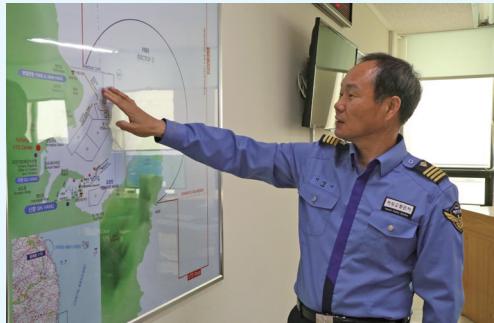
## 포항항도선사회와의 소통

도선사와 관제사는 ‘해상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뚜렷이 갖고 있으며 상호 간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은 물류, 부두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어느 쪽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다 보니 서로 생각의 차이도 있고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항만구성원으로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어망이나 어구 등 항행지연물을 발견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각 연락을 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포항항 입출항선박에 항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도선사가 승선해 있으면 일차적으로 해당 선박의 안전은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출항선박에 직접 승선하는 도선사와 전체적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 어느 한쪽에 공백이 생긴다면 항만 안전은 절대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매년 해상교통관제사의 도선체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찾아 관제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항 안전확보 및 항만효율 증진 등 선진 포항항을 이루기 위해 더욱 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포항항도선사회에 당부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포항항의 도선사분들이 늘 포항항 발전과 해상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상악화 시에도 본인보다 선박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도선사가 많기에 포항항은 도선에 관해서는 20년간 무사고로 항상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사명감을 잘 알기에 본인의 안전도 매우 중요함을 꼭 인식하고 최우선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도선사뿐만 아니라 포항항 항만 운영 전반적으로 해운 경기가 더욱 좋아져서 포항항이 예전처럼 활성화되어 도선사 및 관련업 종사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행복한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영시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다. 마산이란 항구도시에서 바다가 친숙했던 덕에 수산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1985년 마산지방해운항만 청에 입사하여 관제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34년간 마산, 부산VTS에서의 근무를 거쳐 2017년 4월부터 포항항VTS 센터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포항VTS에서 포항바다의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이다.